

1. 종교다원주의 배격
1. 동성애 반대
1. 차별금지법 반대
1. 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172호
5월 8일
2021년
토요일

牧羊新聞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권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www.aogk.org) 이메일: mok2677@naver.com 전화: 02)2677-9935~7 FAX: 0504027-0897

총회 사회비 기자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8877	■ 예금주 예수교대한남녀교회
■ 농협 301-0153-7296-01	■ 문의 02)2675-5181~3

제68차 총회 제23회 임원회

교회의 '철저한 방역' 정부 오판 말아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대면예배



신재겸 목사
예하성 총회장
새한국교회 담임

교단 총회(총회장 신재겸 목사) 제68차 총회 제23회 임원회가 지난 4월 30일(금) 오전 11시 다중영상회의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오랜 기간 동안 확산과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타남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통해 확진자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통상 동영상 회의에서 각종 보고와 회무를 처리하고 주요안건을 등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총회장 신재겸 목사의 인도로 재무 한순남 목사의 기도, 총회장 신재겸 목사의 설교, 코로나 위기 극복과 예배회복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합심기도, 부총회장 정희섭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총회장 신재겸 목사는 마 22:37-39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처럼 세상의 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갈수록 신성을 경험할 것"을 강조하고 임원들을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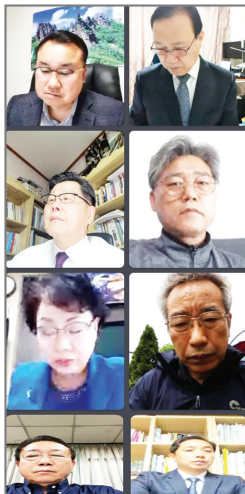
끝으로 이어진 임원회는 총회장 신재겸 목사 주재로 사기 정영진 목사의 회원점령, 의장 신재겸 목사

의 개회선언 후 총무보고사항이 이어졌다. 총무 이영진 목사는 보고사항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각종 총회 일정과 행사 등이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의 추이를 살펴가면서 총회 일정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이어 재무 한순남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김건수 목사의 지출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결의 및 안건으로 의사항으로 교회가입 청원, 교역자가입 청원, 전도사 임명 청원, 교회사수령증 보고, 교역자후보 보고 등의 내용이 결의 및 보고되었다.

이어 제7차 정기총회가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보류되었음과 총회임원은 유익기로 회의를 열었다. 전국 각 지교회별 정기지침회 결과에 따라 선출된 지교회장은 다음과 같다.

서울서부 고현규 목사 서울중부 김성규 목사 서울 남서 이복순 목사 서울남동 정윤기 목사 서울중앙 김택영 목사 경기 장기 은금복 목사 경기중앙 이은승 목사 경기남 박용열 목사 경기북부 김동문 목사 인천 서북 이진태 목사 인천 서남 김보 이득상 목사 인천 동진권 목사 강원 박순용 목사 대전 김병목 목사 충청 김영국 목사 충청 원문경 목사 청주 정희섭 목사 충주 이광구 목사 충북 김용 목사 남한 권우석 목사 영남동권관석 목사 대구경북 도사현 목사 부산 정경익 목사 부산중 정영진 목사 광주 조갑순 목사



전북 유영준 목사 전북서 고현진 목사 전라 백영자 목사 호남 한기봉 목사 제주 안재홍 목사 총회직속 정의섭 목사

2021년도 목회사업 일정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리고 코로나19 거리두기 상황을 지켜보면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임원회에서는 정부 방역 당국에서 중앙 사고수습본부 측에서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방역을 발목로 잡 박을 하는 분위기에 대해 강력하게 나가기로 했으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대면예배를 드리고 교회발 감염소식은 완전히 사라지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은 코로나19 이전 임원회에서의 기념 촬영 장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발의 강력 반대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내분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전평연, 전국 50개 단체 연합), 간경사 회단체전국연합,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비변여성인권연합, 복음평화교회, 서울내분차별금지법반대 기독교연합,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총연합회, 전국원로모임대체연합 임등은 4월 22일 국회 앞에서 이강민 의원이 발의하고 하는 평등법을 강력히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성서취향 및 성평화에 대해 반대할 권리를 법적으로 박탈하는 평등법 발의안에 반대하는 가사학 분야는 합법적 연구인도의 '정체성'이라는 노래와 리더 라성진의 발언으로 시작해서 조복수(복음평화교회)를 이만 달 말나 다 다음 달 초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기능하인 민주당의 전당 대회 전에 할 생각이라고 구제하지 사귀지 못 박았다. 평등법으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과 폐해에 대해서는 이렇듯 많이 발의를 강행하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을 것이다.

성서적
다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지난 4월 22일 한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법』에 관한 발언(한겨레 평등법)을 이만 달 말나 다 다음 달 초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기능하인 민주당의 전당 대회 전에 할 생각이라고 구제하지 사귀지 못 박았다. 평등법으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과 폐해에 대해서는 이렇듯 많이 발의를 강행하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을 것이다.

이 의원의 평등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과 이르면 다들 한 내용에 있어서 사실상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런데 평등법안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문화의 권도·이음에서의

차별금지' 조항이다.
문화란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독특한 생활양식을 의미하며 사회 구성원들이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 공유하고 있는 행동 양식과 사고방식 등을 말한다. 그런데, 『평등 및 차별금지법』이 문화 차별금지'와 결합하게 되면 사회 전반에 걸친 문화를 전면 교체함으로써 사회 구조 자체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폭력력을 가지게 된다.

지난 수년간 동성애 코드가 국내 공권력을 점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극계 남자배우들이 이에서는 동성애를 일과 맞추거나 여장을 하지 않으면 작품을 못할 정도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학원계를 대상으로 한 이러한 소제들은 성 개념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예를 들어 뮤지컬 『너, 돈 돼!』는 동성 간의 사랑이 일관적으로 여겨지는 행동한 상황이 현실이 된 고등학교 '하트비'에서 일어난 고등학생들의 연애편지로 가득하다. 2018년에 초연되어 해마다 제곡인이 이루어진 뮤지컬 『여대 투구』 역시 가을부터 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청소년들의 동성애를 다룬 뮤지컬이다. 동성애를 전면에 내세운 이 작품은 고등학교 개이 커벌의 동성애뿐만 아니라 혼전성관계까지 다루는 동성애화제 과정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 7세 관람가였던 뮤지컬 『여대 투구』는 많은 초등학교생들에게 가까이에서 '드래곤'이라는 여성남자들이 펼치는 화려한 춤과 관련한 퍼포먼스를 그대로 노출시켰다. 최근 온라인으로 상륙 (비비비) 무대에서 가학적 성행위와 동성간 성교에 대한 노출적인 인물을 펼치기도 했다.

국기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따라 2004년에 동성애는 청소년유해매체 시청(중에서 삭제)되었다. 이후, 동성애를 미화하는 웹툰과 웹소설 등이 넘쳐나고 있고 우리 청소년들은 이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다. 우리 사회의 문화 자정 능력이 급속히 상실되어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문화 차별금지법을 채택한 평등법이 제정 되면 공권력에 의한 문화 탄압이 현실화 될 것 같다.

이성민 의원의 평등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하고 성적 타락과 중독의 왜곡된 성문화에 사회에 연연하게 하는 악습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공동선의 추구, 성의 소중함, 생명의 가치가 담긴 건강한 문화에 대한 악습이 합법화된 문화 독재국으로 가는 문열을 열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다수 진한 국민들의 여망을 바니고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을 끝내 발의하면, 모든 단체들이 힘을 합쳐서 아뢰와 같이 행동할 것을 천명한다.

1. 많은 국민들이 서명을 받아서, 평등법안을 반대하는 국회 청원을 진행할 것이다.
2.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에 동원한 국회의원들은 앞으로의 선거에서 건전한 대다수 국민들의 준중한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

3.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에 동원하도록 조장·방조한 정당 역시 앞으로의 선거에서 건전한 대다수 국민들의 준중한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

2021년 4월 27일
간경사회단체전국연합회,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비변여성인권연합, 복음평화교회, 서울내분차별금지법반대 기독교연합,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총연합회, 전국원로모임대체연합,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내분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등

두려움
안
심
내

‘주님 안에서 말 잘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꾀술을 말하지 말고”(벧전 3:10)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언어를 주시고 말하는 기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이 능력이 따르게 하셨습니다. 누에가 자기 집에서 나오는 실로 자기가 거는 고치를 짓듯이 사람은 자기 앞에서 나오는 말로 행복의 집, 불행의 집을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여러 곳에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믿음과 소망과 축복이 가득한 말을 해야 합니다. 다윗의 생애에는 좋은 일과 좋은 일이 고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공경에 처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과 소망의 말을 일관되게 말했습니다. 그러하여 그는 한평생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살았으며 전파의복의 은사를 수없이 경험하였습니다.

둘째, 진실한 말, 거룩한 말,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세 방언을 말하는 것과 더불어 새로운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말이 실제로 담겨집니다. 거짓말, 무리한 말, 누추한 말, 원망 불평의 말이 사라지고 진실한 말, 유익한 말, 거룩한 말,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열매입니다. 믿음, 소망, 축복, 감사의 말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합당한 일을 다하시어 풍족하게 하우십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일로로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과 자신의 관계를 일로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의사가 되십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자녀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행하는 자는 구원에 이르는 자입니다.”

둘째, 본래는 해산되고 해경되고 믿음으로 병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하나님을 믿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막 11:23) 하셨습니다. 성경만 본다면 타산 깊은 자라도 본래에 질려서 낙담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그러한 본질을 통하여 제가되고 병령하십시오. 의심하지 않으면 본래로 믿어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있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릅십시오. 아브라함은 있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릅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번성한 후손을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위해 주신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에 의하여 있는 것을 있는 것같이 말하시었습니다.

넷째, 선다운 말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 9:23)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 신실적인 말마초를 성도들이 못한 것이 습관을 바꾸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말을 일관성을 가지고 말하십시오. 여러분은 항상 어떻게 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우시나니.”

함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은 믿음, 소망, 축복의 말을 하고 진실하고 거룩하며 감사하는 말을 합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일로로 사모하십시오. 본래는 해산되고 해경되고 믿음으로 병령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있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릅십시오. 선다운 말을 하는 것이 습관화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말을 일관성을 가지고 말하십시오. (은혜와진리교회)

코로나로 위기 겪는 필리핀선교사와 가족,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요청

한지교회와 선교사들 힘에 겨워 결코 쓰러지는 일 없도록

교단 필리핀지교회(회장 이인로 목사)는 필리핀 한지의 코로나19의 감염확산이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렸다.

필리핀 한지성당은 1월 확진자가 연일 1만여 명에 이르는 가운데 봉쇄조치가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으며 수많은 한지인들은 실직과 병고, 굶주림 등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으며 백신은 언제 맞을지 가늠할 수도 없다고 전해왔다.

한지인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도 백신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한지인들과 함께 어려움을 함께 견디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새로 출범한 필리핀지교회 2차 임원 일등은 한지교회와 선교사들이 함께 겨워 결코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며 한국 총회에 도움을 요청해 왔다.

김관현 생평목사로 소독제, 마스크, 쌀, 약품과 재정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교에서는 위원회 여러분들과 함께 정성을 모아 필리핀 한지에서 시류를 받고 있는 선교사와 가족들을 위해, 교회 성도들을 위해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며 기도와 함께 도움을 요청드린다.

후원문의 02)2675-5181~3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MISSIONS IN THE PHILIPPINES

주요인사: JAGP/PH/2021-0001/14/2021
주요인사: JAGP/PH/2021-0001/14/2021
주요인사: JAGP/PH/2021-0001/14/2021
주요인사: JAGP/PH/2021-0001/14/2021

주요인사: JAGP/PH/2021-0001/14/2021
주요인사: JAGP/PH/2021-0001/14/2021
주요인사: JAGP/PH/2021-0001/14/2021
주요인사: JAGP/PH/2021-0001/14/2021

한기지협, 국제사이버신대원 개원

3천여 개 온라인 성경 강좌 준비 완료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신진목 목사)이 한기지협(지협)은 지난 4월 15일(목) 오후 2시 서울 관하동 코리나호텔에서 국제사이버신대원(총장 최병두 목사, 원장 이경준 목사)를 개원했다.

국제사이버신대원은 한국교회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대거 이사로 참여한다. 한기지협 대표회장 신진목 목사를 비롯해, 김동권 목사(합동 총장총회장), 최병두 목사(총합 총장총회장), 김진호 목사(기장 총장총회장), 엄성현 목사(한기총 총장대표회장), 엄기호 목사(한기총 총장대표회장) 등이 함께하고 있다.

왕장 이경준 목사의 사회로 열린 개회 예배는 이사 환영식 목사의 기도에서 이어 총장 최병두 목사가 '성령을 살리는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다.

최 목사는 "인간의 죄는 오직 복음으로 깨끗케 할 수 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치유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해 주어야 한다"라며 "마음을 사방으로 정화를 희망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상을 바꾸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도자들의 축하와 격려도 이어졌다. 부이사장 김동권 목사는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며, 부이사장 김진호 목사는 "성령의 힘을 갖고 세상과 소통하며, 미래에 도전하는

능력 있는 지도자를 배출하는 신학교를 만들자"라고 권려했다.

이사 엄성현 목사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기에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가 됐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우리가 일마개를 하고 살겠냐"라며 "이 사역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케 하는 귀한 사역에 쓰임 받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직운동으로 대한민국을 살리자”

제1회 정직한 사회만들기 캠페인 전개



정직화사회만들기(대표 최영은)는 지난 4월 15일(목) 오전 11시 서울 관하동 코리나호텔 강문 앞에서 '제1회 정직한 사회만들기 캠페인'을 갖고 한국을 정직한 나라로 만드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정직한 사회만들기 자문위원인 김진호 목사(기장 총장대표회장)는 이 캠페인 전개 목적

에 대해 "현재 대한민국은 외형적으로는 국제 신장을 높이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도덕적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국가가 도덕적으로 중병에 걸린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부정부패로 망가진 사회를 정직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직 운동'만이 해결책이다. 이 운동이 확장되어 대한민국과 한국사회를 살리

는 운동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이어 "정직한 사회만들기는 이 운동을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직한 사회만들기는 '정직 설계'로 수월해 발표했다.

△하나, 전철 에스컬레이터에서 걸거나 뛰지 않기 △둘, 전철 불법 무임승차 안 하기 △셋, 종교인까지 포함해서 세금 정직하게 내기 △넷, 보행자가 아닌 하기와 부싱공사 안 하기 △다섯, 자동차 운전과 횡단보도 규칙 지키기 △여섯, 직장에서 공공 재물로 쓰고 남은 돈 돌려주기 △일곱, 국회의원, 공직자와 군인은 정직하게 나라 돈 쓰기 △여덟, 부정부패한 돈으로 가정생활 안 하기 △아홉, 연구 분야에서 부정과 표절 안 하기 △열, 약속을 지키고, 속이지 않고, 정직한 거래하기.

한교연 부흥단, 발대식 준비 감사예배

코로나19 종식, 한국교회 예배 회복운동 전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대섭 목사 부흥단 발대식 준비 감사예배가 지난 4월 19일(월) 오전 11시 한국교회연합회관 VIP실에서 열려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예배 회복과 부흥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한교연 주석 한교연 부흥단(한교부)이 주관한 이날 예배는 노병두 목사(총합본부장)의 사회로 김교현 목사(한교연 총무총회장)의 기도, 임은정 목사(한교부 전양위원장)의 특송에 이어 송대섭 목사(한교연 대표회장)가 '참된 교회는 제 목으로 설교한다'는 성경의 역사가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후 불타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교회 일과도 심하게 스테인 잠사가 죽었고, 주님의 제자 야고보가 목이 바버라 죽었다. 그 후 예루살렘교회는 부흥하고 그 결과 안디옥교회가 세워졌다"



라며 "하나님의 교회는 핏박 없이 부흥한 시대는 없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부흥하고 발전해가는 게 진리"라고 강조했다.

송 목사는 이어 "우리는 한국교회회를 책임지는 지도자다. 이 시대를 살리는 부흥사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며 "바른 신앙 없이 목회도 없고, 부흥도 될 수 없다. 이를 위해선 바른 진리와 신앙의 기반 위에 가르치고 병든 자

를 치유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후 원민우 목사(한교부 대표회장)가 인사말을, 정도훈 목사(한교부 연수위원장)가 권면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교연 부흥단장 원민우 목사는 "한국 개신교가 쇠락하는 이유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기 때문이다. 이들이 성령에 의해 뜨거운 열정을 받기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그러한 때에 부흥단이 한국교회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자"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재개발조합의 불법이 문제

사랑제일교회... 재개발 문제 전권위 구성해 합의 촉구

사랑제일교회(담임 정광은 목사) 재개발 문제가 서울시와 재개발조합의 불법과 인도적인 약탈과 이로 인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사랑제일교회 정광은 목사

는 지난 4월 20일 오전 11시 자신이 시무하는 서울 정우동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재개발 조합에 의해서 기어 당했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4월 19일 공사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관들과 맞섰던 상황이었다. 정광은 목사는 현재 교회에서 재판 중임에도, 판사가 집행관들을 하라했다며 이를 비난했다.

사랑제일교회 재개발 사태에 대해 다수 언론은 교회법이 기존 88약항의 보상액 액수가 반발해 발인, 일박하기로 보도했으나, 교회측은 이번 사태의 핵심은 "보상비가 아닌 서울시와 조합의 불법과 부당"에 대한 고발"이라고 강조했다.

교회측은 이번 주장은 2009년 서울시 재개발 조약에 근거한다. 해당 조약에 따르면, 종로구청은 우선적으로 '종로'도도록 검토하고 있다. 이전에 불가해할 경우 이전 계획을 수립해 관리처분을 실시한다. 특히 이전에 불가해할 경우 종로구청은 이전에 계획 수립해야 한다.



취약계층 여성 위해 생리대 8만장 나눔

비비안·배우 이민정·지파운데이션 생리대 기부 전달식

국제개발협력 NGO 지파운데이션(대표 박종환)이 난재민 비비안(대표 손영심)과 배우 이민정과 함께하는 기부러브(Give Love) 캠페인을 통해 8만장의 생리대를 기부하는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2일 비비안 신장 사역에서 진행된 전달식은 비비안 대표 손영심, 배우 이민정, 지파운데이션 대표 박종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비비안이 1-15일(월) 배우 이민정과 함께 진행한 '기부러브(Give Love) 캠페인'은 여성 월경곤란 증상 운동의 일환으로 기부러브 캠페인 개시를 '1000그림 달상'을 통해 생리대를 기부하는 캠페인이다. 지파운데이션은 이렇게 기부된 생리대 8만장을 44여 명의 취약계층 여성 및 청소년에게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비비안 손영심 대표는 "비비안은 한부모 가정 청소년, 미혼모 유방암 환우 등 여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꾸준히 사회공헌을 진행해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고객과 국민에게 보답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전했다.

지파운데이션 박종환 대표는 "취약계층 여성을 위해 배려를 주신 비비안과 배우 이민정에게 감사 드린다"며 "취약계층 여성들이 생리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파운데이션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YMCA, 고양국제청소년문화센터 개관

청소년관 · 스포츠관 · 숙박관 등 청소년복합시설

서울YMCA 고양국제청소년문화센터 개관식이 지난 4월 21일(수) 성료되었다.

창립 120주년을 앞둔 서울YMCA가 1980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지역에 청소년관련 일을 간직하고 40년간 고양시는 물론 유나이티드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창조적인 문화정당에 이바지해 온 경과와 노후를 바탕으로



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개관식은 경과보고, 홍보영상상징, 김인복 서울YMCA 이사장의 개관사, 축사, 공포배 감사패 증정, 조구태 서울YMCA 회장의 인사 및 광고, 표창은영에 이사의 축도, 테이프 컷팅 순으로 진행됐다.

축사는 코너 박영지 회장이, 국회 본회의로 인해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 축사를 해주

었다. 영상 축사는 정세균 대한민국 전 국무총리, 이재준 고양시장, 심상정 국회의원(일산·고양시), 한준호 국회의원(일산·고양시), 홍정민 국회의원(일산·고양시), 이용우 국회의원(일산·고양시)이 영상으로, 이경용 의정(고양시의회), 이종철 전 국회의원은 직접 참석해 직접 축사의 뜻을 전했다.

제11차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신학포럼 개최

‘ACTS 신학과 북한선교’를 주제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ACTS) 부설 신학연구소가 주관하는 '제11차 ACTS 신학포럼'이 지난 4월 19일(월) 양행 캠퍼스 대강당에서 'ACTS 신학과 북한선교'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ACTS 신학포럼은 ACTS 신학공관문

동의 일환으로서 대학원 원우들을 대상으로 교수와 학생이 함께 연구하여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학술세미나로 매해 정기간담회 기간에 열리며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ACTS가 펴내고 있는 'ACTS 신학선상

운동'은 기독교 신학의 이론과 실천의 모든 분야에서 복음신앙을 통한 구원이라는 '기독교의 중심진리'를 우선적으로 강조하며 '공관'이라는 운동으로서 다양한 학제 간의 통합적 연구의 성과를 발표하고 복음의 범람을 돕는 학문연구를 촉진하는 큰 의미를 지닌 신학-신앙 운동이다.

제11차 ACTS신학포럼은 신학연구소 소장인 박영규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발표된 논문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인 정지웅 교수의 'ACTS 신학과 북한선교'와 신교대 학원 북한선교학 교수인 조기연 교수의 '북한 교회 회복을 위한 ACTS 신학의 가능성'이었다.

나사렛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진로 협약

‘장애대학생 진로취업지원사업 확대’ 업무협약 체결

나사렛대학교(총장 김경수는)는 지난 4월 23일(금) 오전 11시 나사렛대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중현)과 '장애대학생 진로취업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다. 이날 협약식은 대전충청지역 장애대학생 진로취업거점대학사업단인 나사렛대학교를 비롯한 7개 권역 사업단이 참여했으며, △장애대학생 취업지원사업 확대 △장애대학생 온라인 취업컨트 △장애대학생 진로멘토링 사업 △

장애대학생을 위한 맞춤형 진로 · 취업지원 서비스의 제공 △구인자 채용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018년부터 '장애대학생 진로 · 취업 지원 사업'을 수행할 거점대학을 선정하고, 장애대학생의 체계적 진로 · 취업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도 거점대학은 장애대학생진로취업지원사업단 - 충청권역(나사렛대, 수도권역(한국복지대, 숙명대, 호남제주권역(북대), 대구권역(대구대), 부산권역(부산대), 강원권역(가톨릭대) 등)이며 나사렛대학교는 지난 2018년부터 거점대학 사업단 회장을 맡고 있다.



성명의 말씀



유형 열 목사

· 강원지방회 중경회장
· 열린교회 담임
· 영월군 기독교연합회장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8)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목사님을 통해 처음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중경에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 영혼구원을 하게 하였고, 그가 온데자리를 세워서 한 부부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즉 합력하여 오는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 나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간증도 성도님들에게 전해지는 마음을 주셔서 일부분 감당하고, 또 중경에 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 말씀, 제사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골조를 맡았던 건축업자는 건축의 수많은 골조 가운데 한 부분을 감당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 저 교회 내가 지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 건축에 아주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을 감당한 직분자가 마치 내가 다 지은 것처럼 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악하고, 무서운 생각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조금 그 일에 참여했을 뿐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해 쓰임 받은다는 감사와 겸손으로 오히려 겸손해져야 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왕의 두 번째 꿈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해석하게 하셨는데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지어서 견고하고 그늘을 드리며 하늘에 닿으리라 곧세는 땅 꼭지까지 미치지 아니하' (단 4:22)

그러나 왕이 사탄에게서 쫓겨나서 들 집으로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이슬이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때를 지낼 것이며 그 때에 지극히 높으신 아가 사람의 나리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는 줄을 아시리라' (단 4:25)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느부갓네살은 마치 자신이 큰 왕국을 이룬 것처럼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을 통해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게 기회를 주십니다. 너희가 한 것처럼 교만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께 하였고 말씀하십시오.

느부갓네살왕은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아 주신 대로 1년 후 그 꿈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28이 모든 일이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29 열두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방에서 거닐새 30 나 왕이 일어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강력과 권세로 건설하였나니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느니라 31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영광이 네게서 떠났느니라" (단 4:28-31)

이 큰 바벨론을 내가 강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는 말이 떨어지자 그가 무성히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영광이 네게서 떠났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단은 우리 속에서 자꾸 네가 했다'고 속삭입니다.

내가 잘해서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세워졌고 내가 잘해서 오늘 이 교회가 성장했고, 내가 잘하고 뛰어나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속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이 가지는 교만이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그리

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챈 것은 무서운 죄악된 행위입니다.

결국 이렇게 타락한 본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잘 했다고 자만하며 살다가 망하는 것이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인격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을 회개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지만 결국 전체를 놓고 보면 그것은 극히 작은 한 부분 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국교회에 아무런 성정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목숨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온갖 비애와 어려움 속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 우리가 복음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런 수고나 할자도 없는데, 그것은 결코 자랑할 것이 못됨을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수고한 일에도 하나님께서 가하여 주시길만 결국 이 인류역사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불리고 한 부분으로 써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6 나는 삼고도 이별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7 그 만큼 심는 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라 8 심는 이는 물 주는 이는 한가지 아니 각 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고전 3:6-8)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 애를 먹고 수고하였는지, 고통을 하지 아니하고 3차 전도여행을 통해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개척하여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하였고 그 자리에 아볼로를 심어 물을 주고 가꾸고 양육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시작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의 성장과 발전은 바울과 아볼로의 공로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로패를 받고 거기에 맞는 대접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 즉 자신과 아볼로는 아무 것도 아니고 오직 그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며, 그들에게 영적 생명을 주어 자라게 하신 하나님 오직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겸손의 고백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아무리 신도 몇을 준다 하더라도 그가 생명을 주고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결국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자꾸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인데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한 일을 우리가 한 일로 착각하여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고 자꾸 교만하고 허탄한 자랑을 합니다.

결국 이렇게 잘못 오히려하고 살다가 영적으로 망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모신 원형'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없었던 것은 과이책은 일이다. 이는 감사(監)의 대상이 아닌가? 사육사와 감시원은 분명하게 감시를 통해 어떤 불공정한 관행을 몰식(廢止)시켜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하여 국민들의 분노는 들끓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김종필과 정치방송인 교통방송에서 퇴출시켜 달라'는 요청이 불과 100일 만에 30만 명이 넘고 있다. 그 내용에 보면, '김종필은 대놓고 특정 정당만 지지하며, 그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은 깎아내리고 선거나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TBS는 그 외에도 교통 정보들 시민들에게 알려 주기 위한 방송으로 시작하였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치와 관련하여 편파방송이 된 것은, 서울시민을 한껏 무시하는 처사이며, 스스로 울분을 지키며 이 가는 행에 다름없다.

홈페이지 www.lovehousecare.com ·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홈페이지 www.lovepn.com



노인 장기요양시설 경기도 이천 사랑의집

사랑과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흥열 목사입니다. 사랑의 집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치매, 중풍, 당뇨, 관절염, 파킨슨병, 노인성질환 및 독거노인, 장·단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정직원인 봉사로 있는 요양시설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내집같은 곳입니다. 깨끗한 시설과 쾌적한 주의 환경...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으며, 풍부한 경력의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상주하여 어르신들 가족처럼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민들의 경제를 생각하여 저렴한 요양비로 모시고 있으며, 저희를 믿고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집에서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집 원장 박흥열 목사



오성사랑교회(담임 박흥열 목사)

어르신들 내 가족처럼 내 부모처럼 모시겠습니다

사랑의집 연혁

- 2009. 07. 10 사랑의집 개원 (9인 시설 공동생활가정)
- 2011. 07. 27 사랑의집 신축건물 준공
- 2011. 11. 23 사랑의집 (15인 시설 인가)
- 2014. 02. 10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봉사단체 설립)
- 2019. 09. 23 사랑의집 (20인 시설 인가)
- 2020. 05. 11 사랑의집 (29인 시설 인가)

사랑의집 시설장

- (박흥열 목사 수임경배)
- 2007. 10. 3 이천교회원회 표창
- 2014. 12. 13 이천시장 표창
- 2016. 02. 18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2019. 09. 2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표창
- 2020. 12. 18 이천시장 표창



요양보호사 모집

사랑의집 연락처 : 031-643-4041
주소 : 경기도 이천시 읍면 읍면로 828번길 198-50

010-2217-4489 010-8732-4489

교단공과 신청

출판현금
 ① 유치부학생용, 유년부학생용, 초등부학생용, 아동부교사용(유치, 유년, 초등부 합본) : 각 5,000원
 ② 아동부 설교파워포인트 USB : 10,000원
 ③ 성인용 : 8,000원

특징
 아동부 공과교재
 ① 설교와 공과가 연계되어 있음
 ② 공과는 성경이야기와 활동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③ 영어가 삽입되어 있음








공과신청
 ① Fax: 02)2677-5181, 031)441-1793
 ② e-mail: aogk@aogk.org
 ③ 입금계좌: 농협 355-0053-3758-93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와진리교회

문의
 전 화: 02)2675-5181~3, 031)447-2922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단법인 아산시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대표회장 본부장 실무회장

상임회장
















진동용 목사 이두영 목사 박노섭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김병완 목사

고문 정연창 목사, 강상철 목사, 김소윤 목사, 김형태 목사, 신상우 목사, 이영한 목사, 임기식 목사, 연홍희 목사
자문위원 이명수(국회의원), 강훈식(국회의원), 오세현(아산시장), 고재권(아산경찰서장), 황재만(아산시시장), 강희복(전 아산시장), 박성기(U1대학교 교수)
대표회장 진동용 목사
본부장 이두영 목사
상임회장 진동용 목사, 노선용 목사, 이두영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도승현 목사, 임용석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정훈화 목사, 박노섭 목사, 황창익 목사, 심우섭 목사, 최문기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손 혁 목사, 김병완 목사, 박차영 목사, 박판용 목사, 최성덕 목사, 김병철 목사, 표의성 목사, 김관호 목사, 김득수 목사, 박봉순 목사, 송화섭 목사, 이재구 목사, 최재희 목사, 박신석 목사, 엄태일 목사, 최상근 목사, 황하성 목사, 최순식 목사, 김완진 목사, 백현기 목사, 김준호 목사, 김성구 목사
지도위원 이광로 목사, 서석웅 목사, 장현원 목사, 정병환 목사, 윤동산 목사, 이덕희 목사, 길성권 목사, 권일귀 목사, 조계성 목사, 김익중 목사, 유현희 목사, 고영기 목사, 김경환 목사, 엄태일 목사, 이재두 목사, 김주섭 목사, 김현준 목사, 송화섭 목사, 박덕수 목사, 구자범 목사, 안덕근 목사, 안홍규 목사, 고영기 목사, 박성화 목사
사무총장 정진학 목사
상임총무 송무 차주병 목사
후원회 회장 한상문 장로
후원회 배성환 장로, 김영식 장로, 박동국 장로, 장상근 장로, 오자근 장로, 김도식 장로, 김수홍 장로, 임도순 장로, 이익상 장로, 황익태 장로, 신요섭 장로, 이세영 장로, 김현우 장로, 박해서 장로, 한장섭 장로, 이창식 장로, 광웅기 장로, 차영환 장로, 김기운 장로, 박노완 장로, 김현진 장로, 한상문 장로, 정진경 장로, 이희열 장로, 박종택 장로 (외 각 교회 장로)

실무회장 박노섭 목사
사무총장 정진학 목사
총무 차주병 목사
총무 차주병 목사
서기 정수희 목사
회계 권인숙 목사
재무 이은혜 목사
회원 아산시 400교회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1)메뉴성물집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위험)
 (*고려대학교 송용석 교수님 암으로 세계특허)
2)콜리보노이드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서울대연구논문)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타사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밀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잔디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대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할 수 없는(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70인 천년초식품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백년초는 멕시코 산으로 독성이 있습니다.
 천년초는 토종 한국산으로 독성이 없습니다.
 천년초와 백년초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미네랄,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있음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미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1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입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 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 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 3.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영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수시
- ③ 전형료: 20,000원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e-mail: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1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서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인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전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재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자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 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열심
- 온 세상 민민에게 복음전파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 ① 원서 교 부: 수시
- ② 원서교부처: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 ③ 원서 접 수: 수시
-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개별통보

4. 전형료

- ① 전형료: 30,000원
- ②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영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 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7.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02)2678-5181 FAX: 02-2632-0691
-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www.ucts.org, e-mail: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월드비전, '밥피어스아너클럽' 회원 위촉

신재식·박진 부부, 9년간 저개발국가에 식수위생사업 후원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정행)이 지난 4월 20일(화) 신재식·박진 부부를 '밥피어스아너클럽(Bob Pierce Honor Club)' 회원으로 위촉했다.

신재식·박진은 후원자는 2019년부터 매년 저개발 국가의 식수위생사업에 후원하며 '생명의 물'을 공급해 오고 있다. 9년간 약 1억 3천만 원을 후원, 아프리카 5곳(잠비아·우간다·르완다·가나·탄자니아), 아시아 3곳(필리핀·캄보디아·인도)에 총 11기의 식수대를 건설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월드비전 경기남부 지역본부 지회 임원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신재식 후원자는 "장모님의 기도와 아내로부터 시작된 나눔이 이런 가족 모두에게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분들이 나눔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의 통로로써 기부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은 후원자는 "앞으로 우물 100개를 세우는 것이 소망"이라며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 웃을 때 기

뻘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밥피어스아너클럽은 월드비전 장려자인 미국인 선교사 밥피어스의 이름을 딴 고액 후원자 모임으로, 1억 원 이상 기부 후원자에게 정식 회원으로 위촉하고 후원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활발한 기부 문화 정착을 독려하는 기부 모임이다. 위촉식에 참석한 월드비전 조정행 회장은 "아동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긴 시간 동안 한결같이 후원을 이어오고 있는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부부가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이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두 분의 진심 어린 마음이 현장에도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도록 월드비전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신재식 후원자는 연세대학교신경외과의원 대표를 맡고 있고 아내인 박진은 경기도 화성시에 '예수님은 사랑입니다(Deus is love)'란 의미를 담은 제이엘6274 레스토랑을 운영 중이며, 부부가 함께 후원에 참여하고 있다.



이스라엘, 외국인 관광객 맞이 캠페인

해외관광 재개를 위한 상세계획, 이스라엘 관광부

이스라엘 관광청은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전격적인 글로벌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관광부는 지난 4월 20일(화), 텔아비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관광 재개를 위한 상세계획과 새롭게 시작되는 글로벌 캠페인 소식을 전했다.

파르카쉬 하코헨(Orli Parkash Hachohen) 관광부 장관은, "오늘날 이스라엘은 코로나 이후의 건강과 안전한 삶에 대한 전 세계적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해외여행 재개를 꿈꾸는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2021년 여름 휴가기와 겨울 휴가를 계획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하도록, 전략

적인 글로벌 캠페인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관광부는 대대적인 글로벌 캠페인의 일환으로, 인바운드 관광의 잠재력과 높은 여행질 중점을 기반으로 선정한 7개의 주요 도시에서 이스라엘 여행 홍보를 시작한다. 첫 번째로 선정된 장소는 두바이로, 영어와 아랍어로 홍보가 진행되며 이스라엘 정부가 아랍 에미리트에서 시작하는 첫 번째 캠페인이라는 역사적 의미도 담고 있다.

또한, 미국 뉴욕의 상징적인 장소인 타임스퀘어와 영국 런던의 유명한 피카딜리 서커스에서 안전한 이스라엘 여행에 대한 홍보 캠페인이 병행될 것이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교회 설립 70주년 기념 전도축제를 하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하심을 원하시니라"(딤후 2:4)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며 동내 복음화를 위한 전도축제를 계획했습니다. 가족세트 전도 아카데미 학장이신 박영수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과 오전 저녁시간에는 집회를 하고 오후시간에는 동내 가가호호 주민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 말씀을 제시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주민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평소 기도해오던 동내 아장님에게 경운기를 받고 일하며 가는 아저씨에게 길가에 오소초 모이 이 아가꽃을 피우는 동내 아주머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마을 교회였지만 100여 할마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를 했습니다.

이번 전도축제기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동내 주민 42명에게 교회를 받고 주민을 영접하는 기사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에 몇 분이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기쁨도 주셨습니다. 이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능력전도입니다. 마귀 기도도 준비하고 예배된 영혼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효과적인 전도방법이라 여겨집니다. 우리 주민에게 오실날이 가까워 이마에 이 가족세트전도를 통하여 더 많은 우리의 민족과 열방의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렘루아!

김천 삼교로 박영수 목사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692-4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40



거룩한씨 성동교회, 장기기증 희망등록

새발교회, 세 번째 생명나눔 예배 드려... 누적 등록자 330명 넘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으로 생명나눔을 약속한 교회들의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새발교회(목양수 담임목사)는 지난 4월 11일(주일) 부활주일을 기념해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하 본부) 박진석 이사장을 초청해 생명나눔 예배를 드렸다.

강단에 오른 박진석 목사는 "비록다른 기적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이웃과 나누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은혜'라고 강조하며 '장기기증 환자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자'고 권했다. 이에 성도들은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하며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표현했다. 앞서 2010년, 2014년 두 차례 생명나눔 예배를 드린바 있는 새발교회는 현재까지 33명의 성도들이 생명나눔에 동참했다.

또한 이날 주일학교 예배를 통해 본부의 초등학생 생명중요교육 프로그램인 '모든 생명은 소중한'을 진행해 초등부 학생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나눔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새발교회는 이번 고난주간 금식헌금을 모금한 중증장애인보호시설에 전액 후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같은 날 서울 성동구의 가톨릭 성동교회(최영웅 담임목사)는 성립 50주년을 기념해 생명나눔 예배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축복의 시간을 가졌다.

최영웅 목사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정령으로 교통 받은 이웃을 향한 생명의 사랑을 실천하자"고 권했고, 설교를 들은 79명의 성도들은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하며 감동을 내었다.

세션협과 한교봉, 고난받는 미얀마와 함께하는 기도회

미얀마 한국 선교사를 돕기 위해 후원금 접수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와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세션협)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고난받는 미얀마와 함께하는 제1차 기도회'가 5월 4일(화) 오후 4시부터 열렸다. 이번 기도회 참가단체는 미얀마한인선교사회, KWMF(한국인세계선교사회), KIMNET(세계선교동역자네트워크), KWMC(한국인세계선교협의회), 한국미얀마복귀위원회, 미얀마민주주의네트워크, 한국교회미얀마연대, 제헌미얀마학생연맹회 등이며 한

국교회총연합회가 후원했다.

기도회는 유튜브(한교총:www.youtube.com/한교총KD, KWMA:www.youtube.com/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KWMA로 생중계하며, 이번 사태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독교대학미얀마 유학생 15명과 미얀마 한인 선교사들에게 총 2천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하는 시간도 갖는다.

주요 순서로는 사도에 강대를 목사(KWMA 사무

총장), 개혁신앙이정선 목사(한교총 대표회장), 기도회 조제호 목사(고정교회), 메시지 오정현 목사(사랑교회), 정과보고 김중영 목사(한교총 상임이사), 중보기도 오일영 목사(기독교 총무), 송재용 목사(기독교총), 각자의 말씀 김태영 목사(한국교회총연합회 정전 대표회장), 축도 조정호 목사(KWMA 상임이사) 등이다.

문의 한국교회총연합회 02)77-1225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혜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온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컵속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로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충치 예방 2.풍치 예방 3.잇몸 질환 4.혀 살균 5.편도 보호 6.감기예방 7.혀 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기침의 효능)

365 치아 건강비전 옥금수
충치·풍치·잇몸질환
옥금수(소금물)로!!

500ml
30개들이 33,000원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www.enyber.com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성령충만을 사모하는 이들과 함께 천혜의 자연공간에서 기도와 찬양

순복음세움교회... 청도 풍각면에 호수와 산으로 둘러싸인 수양관 마련, 코로나 이후 준비



부산지방회장
순복음세움교회
정경목 목사

코로나로 인해 마음 편히 움직이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에 순복음세움교회(담임 정경목 목사, 부산지방회장)로부터 청도에 수양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터전을 갖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듣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한걸음에 달려갔다. 초목의 물결이 완연히 웃을 길이 앞은 산이, 앞에는 호수가 잔잔한 물결을 연이어 만들어 내고, 뒤로는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초목물결 가득한 월은산이 포근히 감시는 천혜의 조건을 갖춘 아름다운 수양관이 그림자림 속에 들어왔다.

"순복음세움교회성도들과 함께 몇 년째 기도해 오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심령을 채우기 위해 언젠가 달려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많은 교회들이 시간을 쪼개어 공간을 함께 공유하여 기도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서로 섬길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가 현실로 다가왔다. 경북 청도군 풍각면 덕양리에 준비된 수양관은 그동안 꿈꿔왔던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이미 특정한 유망형 목조 기지제로 세워진 숙소와 기도처가 중심을 잡고 앞뒤로 준비된 전체 600평 규모의 대지에는 규모에 맞는 중형 소형 예배실을 건축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어 있다.

순복음세움교회 담임 정경목 목사는 20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신양관, 목회관, 성경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부교역자 시절 정경목 목사에 다녀오던 중에 교통사고로 1년여 기간 동안 큰 고통을 겪으면서 그동안 묵화지로서 부족한 자신을 돌아보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으로 1999년 10월 기도의 동역자들 10여 명이 함께 모여 양정지역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된다.

개척 7개월 만에 양정에서 해운대로 옮겨 그곳에서 17년을 지내는 동안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양정산 끝자락에 위치한 천포동에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도심 속에 자연과 함께 숨쉬는 천포동 새성전에서 2008년 3월 12일 인당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대지 190평, 건물 1층 130평 2층(복도) 120평, 3층 100평의 세움교회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세워졌다.

결론으로 가정문제, 부부문제, 자녀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를 안고 답답하고 억눌려져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기도와 말씀번임을 깨닫는 정경목 목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죄인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유부남을 통해 오여 개국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음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한다.

정 목사는 이번에 청도에 귀한 기도처를 허락해서 순복음세움교회 성도들은 물론 교단 부산지방회 등 수양관을 필요로 하는 교회와 목회자들 성도들을 위해 함께 공유하기를 소망한다. 성령충만받기를 사모하고 신앙의 성숙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을 섬기고자 한다.

순복음세움교회 : 051731-4202

부산시 진구 전동동 191-777



2018년 9월 12일 인당예배를 드린 순복음세움교회 천포동 새성전



청도 풍각면에 마련한 수양관 앞뒤로 준비된 대지에는 규모에 맞는 예배실을 건축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어 있다.



청도 풍각면에 새로 마련된 수양관 전경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산하 지방신학교 2021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학장 한 명 점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 051)803-3327
- F A X : 051)581-0198
- e-mail : yhsbs3927@hanmail.net



(학장 최 정 식 목사)

예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복련로 372-25
- T E L : 062)952-7004
- F A X : 062)953-5004
- e-mail : sm1004@daum.net



(학장 오 일 선 목사)

예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 changdean@hanmail.net



(학장 김 상 웅 목사)

예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37-2705
- e-mail : ho-gi@hanmail.net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0212675-5181~3 FAX:0212677-5181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교단산하 개교회 및 도시, 농·어촌, 산간벽지,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량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주시면 부흥사회에서 **완전 자비량**으로 부흥회를 인도해 드립니다.

2021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회 장 김기진 목사 HP : 010-4112-9313
 상임총무 오세준 목사 HP : 010-5041-3411

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평등이란 하물로 국민을 기만하고 가정 해체, 도덕 파괴, 양심을 억압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나쁜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 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자는 기본법의 취지를 파괴하는 개정 법률안으로 현행법에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을 통해 구성된다고 정의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여, 혼인이나 혈연, 입양이 아닌 관계도 ‘가족’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즉각 철회하라!

경북기독교총연합회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과 “나쁜 차별금지법안과 건강가정기본법안” 추진을 엄중히 경고하고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 추진 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말은 사람을 미혹하기 좋은 표현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불평등 법이다.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면 사회 전반에서 동성 성행위에 대한 합리적 비판조차 혐오와 차별로 규정, 공공기관은 물론 사기업도 내부 규율을 통해 ‘동성 성행위’나 ‘성전환’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차별과 혐오’로 매도당하고, 고용 및 경제적 사법적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동성 성행위나 성전환의 해에는 온전한 재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하는 사회 풍토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동성애의 보건적 해악을 알리는 것은 혐오와 차별로 처벌하려는 발상 자체가 이미 동성애나 성전환 옹호만 조장하고 동성애에 대한 정당한 비판조차 재갈 물리겠다는 불평등을 내재한 독재법이 아닐 수 없다.

동성애 옹호 문화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아동과 청소년들이다.

청소년 유해 매체로 규제하던 동성애 코드가 국가인권위원회 압력으로 해제(2004년)된 이후 청소년들이 동성애 웹툰과 웹 소설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 결과 청소년 에이스 신규 감염이 매년 수

백 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동성애의 보건적 해악은 알리지 않고 동성애 옹호 교육만 조장한 결과이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가 공권력으로 개인과 가정의 윤리관을 통제하는 나쁜 평등법,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정당한 비판에 재갈 물리는 동성애 독재법을 발의하는 것 자체가 민주시민 사회에 역행하는 것인바 이상민 의원은 건강한 성 윤리와 생명윤리를 지지하는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하길 경청하고 동성애와 성전환 옹호·조장하며 가정 해체, 도덕 파괴, 양심 억압하는 나쁜 평등법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나쁜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 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자는 기본법의 취지를 파괴하는 개정 법률안으로 혼인이나 혈연, 입양이 아닌 관계도 ‘가족’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즉각 철회하라!

이것은 서구의 반기독교적 성 혁명론자들이 ‘가족 해체’를 위해 다양한 가족 형태 ‘차별금지’란 명분을 따라하는 것으로 ‘혼인, 혈연, 입양’이란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면서 ‘동거, 공동 거주자’도 가족으로 등록하게 하면서, 동성혼도 합법화하게 되는 문을 여는 것이다.

한국은 출산의 98%가 혼인한 가정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저출산은 심화될 것이고 잘못된 가족 개념이 옳다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세뇌하며 그것들을 신앙적 신념이나 양심을 기초로 비판하는 국민들은 ‘차별주의자, 혐오주의자’로 몰아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다. 곧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사악한 법안이다.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는 남성이 자기를 여성이라고 주장하면 여자 화장실, 여자 목욕탕, 여자 탈의실, 여자 침실 등을 사용하게 하고 여성 운동경기

기에 출전하게 하여 여성 선수들의 금메달의 꿈을 짓밟는 행태를 초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대해 온 것이다. ‘종교 차별금지’에는 한국에서 이슬람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각종 음식 문화와 제도를 보장하라는 주장으로 이것은 행정 분야의 종교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한국의 일부 정치세력들은 대한민국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일부 정치인들이 위와 같은 악법과 조례를 발의하고 비민주적으로 통과시키려는 행태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경북기독교총연합회 산하 2,500여 교회와 성도들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과 평등법을 가장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을 규탄하며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반대한다.

1. 경북기독교총연합회는 양성평등을 거부하는 동성애 합법화인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절대 반대한다.
2. 경북기독교총연합회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억압하는 악법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절대 반대한다.
3. 경북기독교총연합회는 동성애 보호법이며 동성애 반대자 차별법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절대 반대한다.
4. 경북기독교총연합회는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 대다수 역차별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절대 반대한다.
5. 경북기독교총연합회는 가정 파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절대 반대한다.
6. 경북기독교총연합회는 반성경적이며, 반기독교적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절대 반대한다.

2021년 5월 5일

경북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신재영 목사 외 임원 일동
 경북 23개 시·군 기독교연합회 회장 일동